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자누비아’



해 식약청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인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자누비아'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약으로 설포닐우레아(SU) 계열 약물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을 크게 줄여 의료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약이다.

머크에서 판매하는 경구혈당강하제 약물인 자누비아(Januvia, 성분명 : sitagliptin)은 디펩티딜 펩티데이즈 IV(DPP-4) 저해제라는 새로운 계열에 속하며, 인체의 혈당강하 능력을 촉진시키며 2006년 10월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약물은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거나 없애므로써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 없는 혈당 강하

자누비아는 최초의 DPP-4 억제제로서, 획기적인 당뇨병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자누비아의 주성분인 시타글립틴(sitagliptin)은 DPP-4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신체의 고유 시스템(인크레틴 시스템)을 강화시켜 혈당을 낮추어 준다. 따라서 자누비아는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수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당뇨병 치료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선택적인 약물작용이 부작용 낮춰

여러 대조 임상 개발 연구 결과, 자누비아 투여 후에도 환자들은 임상 시험 시작 전에 측정된 환자의 체중에서 큰 증가가 없었으며, 저혈당을 비롯한 부작용도 전반적으로 위약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누비아를 1일 1회 투여한 결과, 위약과 비교하여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자누비아의 국내 허가사항 및 용량

자누비아(JANUVIA)는 인슐린 비의존성당뇨병환자(제 2형)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 받았다.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으며, 또한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시행하면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은 계열과 병용투여 할 수 있다.

자누비아는 경증의 신장질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증도의 신장질환자는 1일 1회 50mg을 투여한다. 중증의 신장질환자 또는 혈액투석을 요하는 말기신장질환자에서는 1일 1회 25mg을 투여한다. 이 약은 혈액투석 시점과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즉 신기능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므로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의 평가가 권장된다. 

